

사설

## 尹 대통령 막말 논란, 이제는 그만

지난달, 미국 순방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뒤 회의를 빠져나가며 욕설을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윤 대통령은 ‘이 새X’와 ‘쪽팔려서’와 같은 비속어가 섞인 막말을 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사실을 처음 인지했을 때, 해당 부분이 오해를 살 수 있다며 기자단에게 비 보도 요청을 했다.

논란의 영상이 공개된 다음 날 김은혜 홍보수석은 욕설이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욕설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짜깁기와 왜곡으로 동맹국을 조롱하는 나라로 전락시켰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대통령실은 욕설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욕설의 대상 자체도 야당을 지목한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함께 있었던 박진 외교부 장관도 같은 날, JTBC 인터뷰에서 소름이 많아 비속어를 직접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27일 해당 사안을 포함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상정을 결정했다. 이를 뒤, 국회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모든 국민

이 영상에 쉽게 접근해, 전말을 직접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이없는 해명만을 반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깔끔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어야 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의 주장과 달리 계속되는 해명이 국격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 국격뿐 아니라 정계 역시 파국으로 치닫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을 끌어나갈 원동력을 잃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기회를 정치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만이다. 야당은 여당과 대통령을 견제하는 일은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그 일만 수행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앞서 나간 정도가 크다. 적당한 정도에서 비판을 그만두고, 또 다른 민생에 집중했다면 어떨까. 야당의 이러한 스탠스는 정계의 모든 이목을 해당 사안에 집중하게 만든다. 오히려 처리해야 할 시급한 다른 문제를 희석화시키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도 깔끔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야당도 이를 받아들이고, 다른 민생 문제나 정책을 바라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 논란을 주된 의제 자리에서 끌어 내리길 바란다.

석탑추추

## 거 말장난이 너무 심한거 아니오?

○... 호형들, 소식 들었는가. 3년만에 고연전이 드디어 열린다 하오. 코로나 때문에 한번도 경기를 보지 못한 호형들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이겠구려. 본 호형도 벌써부터 신이 나 응원가를 연습하고 있도오. 그런데 이 응원을 경기장에서 써먹으려면 고양까지 가야한다고 하오. 안암골에서 고양까지 대체 얼마를 가야 하는건가. 경기를 보기도 전에 지쳐서 응원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소. 이에 한 호형 말하길, “고향이 그리워 고양까지 가나”

○... 인권연대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초청 강연을 진행한다고 했다가 취소했던 일을 기억하오? 퀴어퍼레이드 참여 취소에 이어 또 한 번의 취소로 말이 많았다고 하오. 임시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는 인권연대국장의 해

임 논의 사유가 되기도 했도오. 그런데, 한 호형은 박경석 대표를 학교에서 만났다고 하지 않겠나. 어떻게 된 일인지 들어보니, ‘인권연대국’이 아니라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에서 주최했다고 하더군. 이에 한 호형 말하길, “이름만 바꾸면 새롭게 변신하나”

○... 얼마 전 연세대에서는 즐거운 축제를 즐겼더군. 파란 옷들이 신촌을 가득 채웠을 생각을 하니 아득하오. 얼굴책에서는 아카라카 라인업을 실시간으로 늘어놓고 있더군. 아무리 봐도 호랑이의 기운이 넘치던 입실론펀더가 더 재밌어 보였도오. 그런데 한 댓글에서 말하길 ‘이번 축제는 아카라카의 압승이오’ 웬 병아리가 말장난을 치고 있구나!

김시현 취재1부장 poem@

시론

이정민  
카이스트 융합원 초빙교수  
IISS국제자문위원장



우리나라는 ‘안보 백화점’이다. 지구상에서 한국만큼 다양하고 심각한 군사·경제안보위협에 노출된 나라는 없다. 가중되는 북핵위협, 중국의 군사대국화와 미중패권심화, 취약한 핵심 공급망들이 대표적인 외적 삼중고(三重苦)다. 여기에 더해 피할 수 없는 인구절벽, 초고속 고령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사회복지예산 등 내적 삼중고가 자리 잡고 있다. 이를 본격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장본인들은 바로 현 MZ세대다. 이들이 기성세대가 될 때 상상을 초월하는 소용돌이들을 맞이할 확률이 매우 높다.

한국이 가진 대표적인 시한폭탄은 ‘도너츠형 국방태세’다. 외형적으로는 첨단 무기로 무장한 세계 6, 7위의 우수한 군이다. 한국형 인공위성 정보·정찰·감시체계 구축 계획과 인공지능(AI)화되는 ‘스마트 군대’로 달려가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도너츠처럼 가운데가 텅 비었다. 군은 전쟁을 두려워하는 컴퓨터 스크린 전투력향상 훈련에 익숙해진 닌텐도 군대로 변하고 있다. 정부는 국방개혁을 외치지만 실전능력 향상에는 소원하다. 일부 사회집단은 평화를 반대하는 모든 행위와 사고가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평화집착 심리를 애국가처럼 칭송한다. 왜곡된 대북 및 주변국에 대한 정보도 문제다.

‘도너츠형 국방태세’는 매 정권 나빠지고 있다. 진보진영은 한반도 평화가 궁극

적으로金正은의 의지에 달린 만큼 달래고, 돈을 주고, 민족대단결을 강조하면 핵무기도 없어진다는 환상을 갖고 있다. 보수진영은 북한에 할 말은 한다면서 결국 대북제재강화와 한미동맹에 더욱더 의존하고 날로 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한미동맹과 미국의 핵우산 외의 특별한 대안을 보이지 못했다. 끝으로 모든 정권은 첨단무기로 이뤄진 ‘스마트 군대’의 기치 아래 어떤 도발도 격퇴할 수 있다고 장담한다. 그러나 군은 정권 눈치만 보고, 진보는 평화만으의 안전보장만 강조하고, 보수는 연합방위 태세로의 안전보장만 강조했다. 도너츠의 구멍은 더 커지고 말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영웅으로 자리매김한 젤렌스키 대통령이 집권 전 코미디언이었다고 비웃은 정치인도 있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선전하는 이유는 전·현임 지도자들이 ‘도너츠형’이 아닌 ‘인절미형 국방태세’를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대통령, 정치권, 군지휘부, 정보당국, 군산복합체가 일심동체로 싸울 수 있는 결집력과 의지를 뜻한다. 리더십과 국민적 합의, 자주국방을 강화한 것이다. 물론 더 근본적인 요소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투쟁의식이다.

젤렌스키는 집권 직후부터 러시아군의 4분의 1 수준인 우크라이나군이 어떻게 전장에서 싸울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고 한다. 미국 정부가 그에게 탈출을 권유했을 때 그는 “나는 당신들이 제공할 차편보다 실탄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응수했다. 이 말은 우크라이나의 ‘인절미형 국방태세’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우크라이나 군지휘부는 ‘스마트 군대’ 대신 오직 최악의 상황에 서의 전쟁 수행을 고심했고, 주어진 하드와

워(무기와 장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지와 결속력)를 개선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작업은 진정한 ‘한국형 독트린’ 개발이다. 첫째, 한국형 억제수단을 비례대식 수단까지 포함해 다각도 검토. 둘째, 한미군사동맹을 계속 강화하되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에 기반한 유사시 군사작전 구축. 셋째, AI 기반 군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지만 먼저 북핵과 탄도미사일위협을 최대한 억제·응징할 수 있는 무기 및 지휘통제체제의 보장. 넷째, AI 전쟁 시대에 필요한 군 교육시스템을 현 사관학교 제도 중심으로 이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모든 생도가 1, 2학년을 통합교육을 받고 3, 4학년에는 육·해·공 전공심화 트랙으로 진행하는 제도 개편. 다섯째, AI시대 전쟁은 기업체·대학교·연구소 없이 비교우위를 극대화할 수 없기에 이들을 중심으로 군의 모든 영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실상의 ‘제4군’ 체제를 구축하고 정보공유를 위해 각종 사일로 허파.

전쟁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은 여전히 ‘유비무환(有備無患)’이다. ‘Si vis pacem, para bellum(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의 역설적인 라틴어 구절도 떠오른다. 초음속 미사일, 레이저 빔 무기, 무인기·드론·로봇, 인간과 기계의 유기적 인터페이스 등 영화관에서 보던 미래전의 모습이 서서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전쟁 대비를 AI에 맡길 수 없다. 정의로운 평화 정착을 북한과 중국에 맡길 수 없고, 진정한 자주국방을 미국에 맡길 수 없다. 한반도 안전보장을 위해 정부는 반드시 ‘인절미형 국방태세’로 전환해야 하고 MZ세대는 다가오는 위협에 눈을 떠야 한다. BTS가 아무리 위대해도 전쟁을 막지는 못한다.

수레바퀴

## 전국 대학생들이여, 축제를 즐겨라

코로나 학번인 나의 지난 1, 2학년 대학 시절을 돌이켜 보면 어정쩡하기 그지없다. 대학생도 아니고, 백수도 아닌 애매한 존재였다. ‘민족의 아리아’를 들으며 입시 생활을 버텼지만, 막상 고려대에 입학했을 땐 ‘민족의 아리아’는 커녕 대학 강의실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올해는 다르다. 매주 새로운 축제가 학교에서 열리고 있다. 대동제, 패션쇼, 가을축제... 매주 열려 있는 부스에 강의실로 들어가는 걸음이 느려진다. 고려대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학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다. 오늘은 어떤 학교에 어떤 연예인이 오는지는 요즘 이야기거리의 단골 주제다. 현재 전국 대학의 상황은 마치 참고 있던 흥

이 폭발한 듯하다.

당장 이번 달에는 3년간 학수고대하던 고연전이 열린다. 바야흐로 지난해 9월, 1학년 때 즐기지 못했던 고연전을 드디어 즐기나 했더니 결국은 ‘무산’. 올해야말로 지난 2년간의 설움을 다 풀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지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많은 것이 변했다. 많은 학생들이 축제를 즐기고 싶어하지만,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있다. 지난 1학기 축제에서 응원을 진행하면, 동작을 몰라 멀뚱멀뚱 서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응원은 고려대의 꽃이라 불리지만, 코로나 학번들은 응원 동작에 익숙하지 않다. 수업에 빠지고 학교 축제에 참여하던 로망도 사라졌다. 축제 기간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하다. 학생들에게 축제는 점점 그 중요성을 잃고 있다.

학교 안의 문제만이 아니다. 잠실 경기장은 고연전이 주로 열린던 장소다. 올해 고연전은 대부분 고양에서 열린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잠실에 고등학교가 많이 위치해 고연전의 응원이 수험생들의 공부를 방해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대학의 축제 문화는 계속돼야 한다.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을 열정의 시기다. 우리의 열정은 축제에서 빛이 나며 마음껏 뽐낼 수 있다. 아직은 익숙하지 않기에 주춤거리는 우리지만, 다시 대학 문화의 기존 발걸음에 맞춰 걸어보자.

윤혜정 기획2부장 samsara@

중단횡단

## 서로 마주 볼 수 있기를

신문을 읽던 중 유난히 ‘갈라치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기사를 발견했다. 본디 ‘갈라치기’라는 단어는 바둑에서 시작된 단어로 상대의 진 중양에 돌을 놓아 상대 움직임을 제한하는 공격 방법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많이 바뀐 채 쓰이는 것 같다. 세대, 젠더, 정치 성향 등등. ‘갈라치기’는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기사와 신문, 방송에까지 사용된다. 우리는 어느 순간 서로를 혐오하고 미워하며 우리 편인지 상대편 인지를 나누고 있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도 모자랄 판에 미디어와 일부 극성스러운 사람들은 모두를 반으로 나눠 서로의 범위에

넣으려 한다.

최근 대화할 때 단어 선택 하나하나에 많은 생각을 한다. 사는 게 참 불편해졌다는 생각도 든다. 서로에게 예의를 차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미디어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흔들려야 한다는 것이 그저 안타깝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기준으로 나뉜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에 분단국가로서 국가도 두 개로 나뉘어 있고 남성과 여성으로, 정치 고연전에 앞서 고려대와 연세대로 나뉘어 있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각자 나누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안에서 꼭 선과 악을 구분해야 할까.

서로를 선과 악으로 구분해 ‘갈라치기’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이를 그저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세대가 다르다는 이유로 한순간에 적으로 만들어버린다. ‘갈라치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

서로의 다름을 ‘갈라치기’로 귀결시키는 사회를 만들기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감함으로 너와 내가 존중되고 이해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서로를 갈라치지 말고 내가 나임을 인정하고 내가 너임을 인정할 때, 더 나은 사회가 돼 서로를 사랑할 것이다.

오찬영 기자 luncheon@

### 고대신문사 The Korea University Weekly

1947년 11월 3일 창간	취재2부장	류요셉	총무국	02-3290-1682
주간	매주 월요일 발행	기획1부장	엄선영	인쇄 중앙일보
		기획2부장	윤혜정	홈페이지 www.kunews.ac.kr
발행인	정진택	사진부장	강동우	메일 press@kunews.ac.kr
편집인 겸 주간	김재환	미디어부장	김채연	페이스북 /kunews1947
			플러스친구	@고대신문
편집국장	이원호	편집국	02-3290-1683	주소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로 108
취재1부장	김시현	세종 편집국	044-860-1888	청산MK문화관 6층